

TV 1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6 ⑥:40 그대 그 사랑(재) 50 부부극장 콩깍지(재)	00 KBS 뉴스광장	00 2014 소치 동계올림픽 기획 굿모닝 대한민국 1~2부	00 소치 동계올림픽 특집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소치 2014 특집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30 2014 소치 동계올림픽 굿모닝 소치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내 손을 잡아>	00 KBC 뉴스지금 30 남도의 아침
8 00 굿모닝 A	25 아침미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연속극 <나만의 당신>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순금의 땅> 40 2014 소치 동계올림픽 하이라이트	30 MBC 생활 뉴스 45 2014 소치 동계올림픽 하이라이트 뜨거운 겨울 소치	10 소치 2014 특집 별을 쏜다
10 10 팩트 10	00 중계방송 국회 대정부질문 교육사회문화 분야	45 수목 드라마 <감격시대>(재)	00 기본 좋은 날	00 소치 2014 특집 SBS 뉴스 30 소치 2014 하이라이트
11 20 정치이야기 是非非				
12 30 소치 투데이 40 스타 패밀리쇼(재)	00 KBS 뉴스 12		00 MBC 정오뉴스 20 2014 소치 동계올림픽 하이라이트 뜨거운 겨울 소치	00 소치 2014 특집 SBS 12뉴스 30 건강클러닉
1 50 뉴스 추적자	00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중계식			30 SBS 생활경제 45 KBC 생활뉴스
2 50 직언직실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00 일일연속극 <빛나는 로맨스>(재)	00 소치 2014 특집 SBS 뉴스 10 문화가중계(재)
3	00 뉴스토크	00 후토스 읽어버린 숲(재) 25 꼬마신선 타오(재) 55 TV유치원 콩다콩	00 MBC 경제 뉴스 10 헬로 키즈 숲속마을 붕붕붕	10 SBS 아슈인 사이트
4 10 박종진의 뉴스쇼 캐도난마 1~2부	00 KBS 네트워크 특선 <비밀방> 55 튜튼 생활채(재)	25 코파 반정의 동화 수시대(재) 55 비타민(재)	00 2014 소치 동계올림픽	00 소치 2014 - 할파인스키 여 활강
5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15 전국 TOP 10 가요쇼(재)
6 00 채널 A 뉴스 TOP10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생생정보통	05 MBC 뉴스 20 불만제로 UP	20 시사터치 떠따부따 30 소치 2014 별을 쏜다
7 20 웰컴 투 시월드(재)	00 KBS 뉴스7 30 필통	50 일일 드라마 <천상 여자>	15 일일연속극 <빛나는 로맨스> 55 소치 동계올림픽 특집 MBC 뉴스데스크	20 일일 드라마 <칼기야 말 하나>
8 30 권철기 카메라 24시간	25 일일연속극 <사랑은 노래를 타고>	30 생생 정보통 플러스 55 비타민	55 MBC 특별기획 <제왕의 딸, 수백향>	00 소치 2014 특집 SBS 8 뉴스 30 KBC 8 뉴스 45 한밤의 TV 연예
9 40 채널 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수목미니시리즈 <미스코리아>	35 드라마 스페셜 <별에서 온 그대>
10 50 채널 A 스포츠 뉴스	00 생방송 집중토론 50 리얼체험 세상을 품다	00 수목드라마 <감격시대>	45 2014 소치 동계올림픽	50 소치 2014 - 스피드스케이팅 남 1000m
11 00 이영동·신동엽 토크맨	30 KBS 뉴스라인	10 맘마미아		①:00 소치 2014 - 피겨페어프리 - 스피드스케이팅 여 외
12 10 모닥드라마 <싸인>(재) ①:20 이영동 PD의 먹거리 X파일(재)	30 네트워크 기획 문화산책 ①:10 K소리 악동	30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여기는 소치 - 스피드 남자 1000m 등		

EBS

06:10 세계의 눈 <특선>(재)	<생명의 줄기, 혈관>	15:15 꼬마 기사 마이크	19:30 두기 탐험대
07:00 곤(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5:30 비두와 친구들	20:00 EBS 뉴스
07:15 마이의 모델	11:20 세계테마기행	15:45 두비두바 눈보리	20:20 다문화 사랑
07:30 꼬마버스 타오(재)	<남이프리카>(재)	16:00 덩동명 유치원(재)	20:50 세계테마기행
07:45 로보카 폴리(재)	12:00 EBS 정오 뉴스	16:20 아기 고릴라 동동	<합가리>
08:00 덩동명 유치원	12:10 EBS 초대석	16:30 코코몽2	21:30 한국기행
08:20 풍선 꼬끼리 발루보(재)	13:05 지식세상	16:45 모야모야 시즌2(재)	<강원도>
08:35 방구대장 뽕뽕이	13:10 겨울방학생활 2학년	17:00 방구대장 뽕뽕이(재)	21:50 EBS 디큐프라이
08:50 모야모야 시즌2	13:30 겨울방학생활 4학년	17:15 꼬마버스 타오	<이파르 중독>
09:05 코코몽2(재)	13:50 겨울방학생활 6학년	17:30 풍선 꼬끼리 발루보	22:45 극한직업
09:20 부모	14:10 천하무적 한자 900(1)	17:45 로보카 폴리	23:15 세계의 눈 <특선>
10:00 한국기행	14:15 장난감 나라의 노디	18:00 두디다콩	24:05 지식채널S(재)
<겨울이야기>(재)	14:30 칠패곡 치킨민	18:15 곤	24:10 한국 영화 특선
10:20 영의의 건강비결	15:00 열려라 아바다스	18:30 생방송 특!특! 보니하니	<삼동과정>(재)

EBS플러스1

00:00 올림포스	<국어 I>	12:10 5분 괴담·생명과학 I
00:50 "	<국어 II>	12:15 수능 특강
01:40 "	<영어독해의 기본 II>	13:05 <미적분과 통계 기본>
02:30 "	<수학 I>	14:00 <국어 B형>
03:20 뉴 틴스런	<한국지리 I>	14:50 <영어 A형>
04:10 "	<과학>	15:40 <영어 B형>
05:00 "	<한국지리 II>	16:30 <한국지리>
05:50 2013 포스	<수학 II>	17:20 <사회문화>
06:40 압축 틴스런	<생명과학 I>	18:10 <경제>
07:30 2014 포스	<문학 II>	19:00 <윤리와 사상>
08:20 올림포스	<영어독해 기본 II>(재)	19:50 5분 괴담·생명과학 II(재)
09:10 "	<수학 I>(재)	20:00 수능특강
10:00 뉴 틴스런	<과학>(재)	21:00 <영어 A형>(재)
10:50 2013 포스	<수학 II>(재)	22:00 <영어 B형>(재)
11:40 박봉의 이슈로 만나는 경제	23:00 수능특강	<세계사>(재)

EBS플러스2

07:00 2014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강좌	15:20 초등 2년 EBS 겨울방학생활
07:30 친절한 수학 익힘책 I(6-1)	15:40 초등 4년 EBS 겨울방학생활
08:00 9급 공무원 시험 대비 강좌	16:00 초등 6년 EBS 겨울방학생활
08:30 검정고시 강좌	16:20 초등 개념잡기 <사회>
09:00 출거운 수학 EBS MATH	16:50 특목! 직업이 보인다(재)
09:10 TV 중학	<국어 I>(재)
09:50 <수학 I>(재)	17:00 TV 중학 <영어 I>(재)
10:30 <도덕 I>	18:00 <수학 I>(재)
11:10 <국어 I>(재)	19:20 <국어 I>(재) <수학 I>(재)
11:50 <수학 I>(재)	20:00 <수학 I>(재)
12:30 중학 1학년 학습비법 특강 <수학>	20:40 <도덕 I>(재)
13:10 중학 2학년 학습비법 특강 <수학>	21:20 <국어 I>(재) <수학 I>(재)
13:50 TV 중학 <수학 I>(재)	22:00 <영어 I>(재)
14:30 <수학 I>(재)	22:40 <수학 I>(재)
15:10 스텝렌드	23:20 세계의 무형문화유산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12일(음 1월 13일 甲寅)

子	36년생 입체적인 고찰이 효과적이다. 48년생 백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보여 주는 것이 더 낫다. 60년생 과정에 공을 들여야 득이 되리라. 72년생 다양한 기회와 조건들이 보인다. 84년생 생이이 발생한다. 행운의 숫자 : 13, 24
丑	37년생 발군의 기량을 발휘할 결정적인 시기이다. 49년생 관계의 소중함을 절실히 통감하게 되는 하루다. 61년생 뿌린 대로 거두리라. 73년생 길고 짧은 것은 대보아야 한다. 85년생 구분을 잘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35, 25
寅	38년생 안전무결함을 추구하다가 무리할 수 있다. 50년생 자발적인 자세가 바람직하다. 62년생 인식하는 관점의 한계가 파격적인 기회의 수용을 저해할 수도 있다. 74년생 장고한 후에 판단할 일이다. 행운의 숫자 : 26, 76
卯	39년생 급선무를 보류하다가 결정적인 시기에 놓칠 수밖에 없다. 51년생 즉흥적이러면 다분히 오판의 소지가 있다. 63년생 편견 없이 뒤돌아 볼 일이다. 75년생 승리의 여신은 노력을 사랑하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24, 05
辰	40년생 위안을 주는 소식을 접하게 될 수도 있다. 52년생 비교해보면 곧 알 수 있느니라. 64년생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이 절실하다. 76년생 일의 중요도에 따라서 선수를 가리는 것이 좋겠다. 행운의 숫자 : 15, 88
巳	41년생 천재일우의 기회와 접촉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53년생 임시방편적인 처리는 궁극적인 부작용으로 나타날 공산이 크다. 65년생 자기하기 나름이다. 77년생 일부나마 진전을 보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3, 6

午	42년생 주변으로부터 크게 주목받을 수 있는 행운이 따른다. 54년생 난해한 문제부터 타개하는 것이 무방하다. 66년생 인내는 곧 보람의 열쇠가 될 것이다. 78년생 다투면 손해요, 양보하면 득이 된다. 행운의 숫자 : 52, 44
未	43년생 현재는 미미 하지만 미래에는 천양지차가 되리라. 55년생 모순은 철저히 배제하자. 67년생 주변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79년생 자기 스스로 처리했을 때 가장 알차고 보람 있었다. 행운의 숫자 : 45, 57
申	44년생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음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56년생 함께하는 과정에서 기회가 보인다. 68년생 진행되어 가던 일이 미루어지리라. 80년생 하나로 통하는 것이 매우 편리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1, 53
酉	45년생 성급하게 일한다면 막힘이 많으리라. 57년생 주변을 살펴봐야 할 일이 생길 것이다. 69년생 연결되는 점에서 갈끔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81년생 발전과 성장 속에서 주춤 거림도 보인다. 행운의 숫자 : 01, 65
戌	46년생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자. 58년생 무난하게 처리하는 것이 최선이다. 70년생 관계가 급속히 냉각 되어질 수도 있다. 82년생 주변 사람의 괴로움을 보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66, 74
亥	47년생 피치 못해서 변경해야만 하는 안락가움이 있다. 59년생 마지막까지 정성을 들여야겠다. 71년생 소모적인 요소는 과감하게 청산해야만 한다. 83년생 고민한다고 해서 즉시 해결될 일이 아니로다. 행운의 숫자 : 12, 80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

日영화 ‘연애 징크스’로 첫 스크린 주연 **티아라** 효민



“연애할 때 밀당보다 솔직한 게 좋아”

“영화에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특히 멜로 장르의 꼭 한번 해보고 싶었죠. 그러나 티아라 멜로 중 처음으로 일본에서 영화를 선보이게 돼 부담감이 있었어요.”

결그룹 티아라의 효민은 10일 강남구 삼성동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연애 징크스’ 기자회견에서 일본 영화에 출연한 소감을 이같이 전했다. ‘연애 징크스’는 남녀 주인공의 엇갈리는 사랑을 그린 멜로 영화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그를 잊고자 일본으로 유학 온 지호(효민)는 기사사에서 친구도 없이 홀로 외로이 살아가는 카에데(시미즈 쿠루미)를 만난다.

지호는 카에데가 같은 대학을 다니는 유수케(야마자키 겐토)를 좋아하는 걸 알게 되면서 카에데의 연애 코치로 나선다. 그러나 지호의 적극적인 연애코치에 카에데와 유수케의 사랑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효민은 극 중 일본어 연기에 대해 “그동안 일본에서 티아라로 꾸준히 활동하며 일본어를 공부했다”며 “수업을 따로 받기보다는 현장에서 익혀야겠다는 마음으로 무작정 현장을 갔다”고 했다.

이어 “일본어 연기보다는 ‘지호’라는 캐릭터가 보여주는 연애 방식과 저의 연애 방식을 잘하는 못하고, 그걸 즐기지도 않는다”며 “좋은 편이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라고 했다.

“한국보다는 일본에서 리허설을 훨씬 많이 한다”며 한 일간의 촬영현장을 비교한 그는 연기와 가수 활동 중 어느 것에 더 애착이 가느냐는 질문에 “둘 다 잘하고 싶다”고 했다.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무대에 설 때

는 무대가 가장 좋고, 연기할 때는 연기가 가장 좋아요. 예전에는 욕심도 많이 났어요. 많은 작품을 하고 싶었죠. 그러나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려면 좀 더 병행해서 힘을 갖게 같아요. 병행하면 시간에 쫓기고 결국 한 번 정도는 동료 배우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아요. 좋은 기회가 온다면 다시 연기를 하고 싶지만 당장 큰 욕심은 없습니다.”

효민은 지난 2011년 고석진 감독이 연출한 공포영화 ‘기생령’으로 국내 영화에 데뷔했다. 해외 영화 출연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화는 ‘러브레터’, ‘추추는 대수사신’ 시리즈 등을 제작한 로부터 제작했고, 영화 ‘너에게 닿기를’을 연출한 쿠마자와 나오토 감독이 메가폰을 들었다.

쿠마자와 감독은 효민에 대해 “예쁘고 연기도 잘했지만 무엇보다 촬영에 임하는 성실한 자세가 좋았다”고 했다.

영화는 오는 13일 개봉한다. /연합뉴스



소녀시대 새 앨범 ‘미스터 미스터’ 발표

‘아이 갓 어 보이’ 이후 1년만에

결그룹 소녀시대가 오는 24일 네번째 미니 앨범 ‘미스터 미스터’(Mr.Mr.)를 발표한다고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11일 밝혔다.

소녀시대가 새 앨범을 발표하는 것은 지난해 1월 4집 ‘아이 갓 어 보이’(I Got a Boy) 이후 1년여 만이다.

이들은 앨범 출시에 앞서 오는 19일 멜론, 지니, 네이버뮤직 등 음원사이트를 통해 타이틀곡 ‘미스터 미스터’의 음원을 먼저 공개한다. 또 11일 오전 ‘미스터 미스터’의 티저 이미지(사진)를 홈페이지와 유튜브,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공개했다.

소속사는 “소녀시대가 ‘아이 갓 어 보이’로 글로벌한 성과를 얻어 새 앨범 활동도 높은

관심을 끌어낼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소녀시대는 지난 연말 ‘아이 갓 어 보이’로 미국 ‘유튜브 뮤직 어워드’에서 레이디 가가, 저스틴 비버, 윈 디렉션 등의 팝스타들을 제치고 메인상인 ‘올해의 뮤직비디오’(Video of the Year)를 수상했으며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2013 올해의 노래 톱 10’에 아시아 가수로는 유일하게 선정됐다. /연합뉴스

TV 하이라이트

설악산 대청봉 등산로 제설 작업



극한직업(EBS·밤 10시45분)은 며칠 동안 내린 폭설로 등산로의 출입이 통제된 날, 점검반의 이른 하루는 시작된다. 1m까지 쌓인 눈을 뚫고 2.3km에 이르는 등산로 제설 작업을 하기 위해 산행에 나선다.

10명의 인원의 고대로 선두에 서며 작업을 진행하지만 허리까지 빠지는 눈에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는다. 10분만 선두에 서도 급세 체력이 바닥날 만큼 쉽지 않은 작업. 결국 계획했던 작업량을 마치지 못하고 아쉽게 하산한다.

다음날 1박2일 일정으로 다시 제설 작업을 하기 위해 길을 나선다. 목표는 높이 1708m의 대청봉. 힘겹게 대청봉 꼭대기에 도착한 이들에게 감사스러운 위기가 닥친다. 예상치 못하게 불어 닥친 최대 풍속 25m/s의 강풍에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든 상황이다.

태백산 주목 군락지 황홀한 설경



관람 카메라, 24시간(채널A·오후 8시30분)은 이 겨울, 춥고 힘들어도 태백산을 오르는 이유는 바로 겨울 산의 진수를 보여주는 주목 군락지의 설경이 있기 때문이다. 수명이 길고 보존이 잘 된다는 의미로 ‘살아 천년, 죽어 천년’이라 불리는 붉은 주목의 군락지에는 서리가 얼어붙어 생긴 상고대와 눈꽃이 만개해 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꼽히는 태백산 주목 군락지의 황홀한 설경에 등산객들은 감탄사가 절로 터지고 사진 찍기 여념이 없다.

태백산을 오르는 또 다른 이유는 평생 한 가지 소원은 이뤄준다는 천제단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천제단에 올라 반만년 역사의 정기를 받고, 간절한 염원을 담아 감오년의 소망을 기도한다.

캄보디아 톤레삽 호수 리얼 잡이



리얼체험 세상을 품다(KBS1·밤 10시50분)는 캄보디아 톤레삽 호수 리얼 잡이에 나선 한영이 짜러(36) 씨 가족을 따라 수상가옥으로 향한다. 짜러 씨 집에 가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배를 타고 가야한다. 밤늦게 집에 도착한 한영은 가족들에게 집 소개를 받는다. 방은 두 칸이지만 없는 게 없는 수상가옥 살림살이.

한영은 이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잠을 자게 된다. 다음날 수상가옥에서 맛있는 아침. 그런데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야 한다는 말을 듣고 놀라게 된다.

짜러 씨는 자녀들 무려 일곱 명이다. 한영은 아이들과 함께 수영도 하고, 큰밭을 도와 팔레도 한다. 어부인 짜러 씨 부부가 새벽에 고기를 팔러 나간 사이, 한영이 대신 아이들 학교 갈 준비도 시킨다.